

“올해는 나의 해... 하는 일 잘 될 것 같다는 희망”



뱀띠 청년들의 희망가

전통시장 상인 김동은씨

15년간 보컬트레이너 하다 전직 월곡시장서 돈가스 전문점 창업 6개월만에 주민 입맛 사로잡아 힘들지만 손님들 칭찬에 힘 얻어 “시장 전체가 활기 되찾았으면”



35세 뱀띠 청년 상인 김동은씨.

올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올해로 세 번째 뱀의 해를 맞이한 1989년생 뱀띠들은 청년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꿈꾸고 있다. 제2의 꿈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뱀띠 청년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광주광산구 월곡시장에서 ‘똥이네돈가스’를 운영 중인 김동은(35)씨는 안정된 직업을 뒤로하고 요식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내디딘 청년 상인이다.

그는 15년간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요리에 대한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김씨는 “보컬 트레이너는 내가 21살 때부터 해왔던 일이다. 어린 나이에 꿈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의 두 번째 꿈은 요식업 창업이었

다.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흥미를 느꼈고,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큰 기쁨을 얻었다.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는 그는 “어머니께서 마트와 시장 정육 코너에서 20년 넘게 일하셨다”며 “어머니를 보며 요리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었다. 장사도 함께 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의지가 돼 주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기존 직업은 그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된 분야였지만, 요식업은 전혀 다른 도전이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이란 항상 두려운 법이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나



2일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 ‘똥이네돈가스’ 점주 김동은씨가 매장에서 돈가스를 튀기고 있다.

를 움직였다”고 밝게 웃어 보였다.

그가 운영하는 똥이네돈가스는 포장 전문 매장이다. 처음에는 단골 확보와 새로운 손님 유입을 동시에 고민해야 했지만, 그의 정성 어린 요리는 지역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단골

로 자주 찾고 있다. 그는 “멀리 수완지구에서도 일부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다”며 “한 번에 10만원에서 20만원어치씩 사가시는 단골들도 생겨났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씨가 장사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은 손님들의 칭찬과 단골들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다.

그는 “돈가스라는 메뉴가 워낙 흔하다 보니, 우리만의 특색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며 “한 번 드신 분들은 거의 재구매를 하지만, 새로운 손님에게 이 맛을 알리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손님들 덕분에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 전체 분위기가 위축돼 영향을 받으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는 “예전에는 시장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을 보셨는데, 요즘은 방문객이 확실히 줄었다”며 “세 세트, 네 세트를 사 가시던 분들도 한두 세트로 줄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큰 매출 타격은 아니지만 경기가 어렵다는 게 몸으로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김씨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이와 해가 맞아떨어지니까 뭔가 기분이 좋다”며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뱀띠의 해가 찾아오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다. 엄중한 사회 분위기지만 모두 힘냈으면 하는 마음에 저렴한 가격을 고수하면서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고 싶다”고 웃었다.

김씨는 앞으로 월곡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인이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그는 “똥이네돈가스가 시장에 오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매장을 찾아오면서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병설유치원 휴원 잇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을”

시교육청, 휴원 행정예고문 게시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6곳의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에 대한 행정예고문을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립유치원 활성화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27일 광주시교육청은 누리집에 광주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총 16곳의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에 대한 행정예고문을 게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당 유치원들이 시교육청 학급편성 최소 기준(5명)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오는 17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보도자료내고 “광주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원아모집 미달 원인 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 2023년에는 12곳, 2024년에는 7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됐으며, 휴원 유치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025년 휴원 예정 병설유치원 중 5곳은 3년 연속 휴원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공유아교육 제공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지만, 공립유치원의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지원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유아모집 미달 원인 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 휴원 유치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불어 올해 예정된 유아배치 계획(2026~2028년) 수립 시, 공립유치원의 연령별 학급 증설, 학급당 유아수 감축 등 중장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천기 기자

북무안IC 틀게이트 추돌한 60대 운전자 숨져

무안-광주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북무안IC 무안방향 틀게이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2일 전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27분께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 방향 도로에서 A(69)씨가 몰던 승용차가 무안방향 틀게이트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

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 직원 등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틀게이트 주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준명 기자



광주FC 선수단과 사무처 임직원들이 2일 오후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한규빈 기자

광주 경제·체육계, 시무식 대신 항공 참사 희생자 애도

광주상의·시체육회·광주FC 임직원 합동 참배

광주 지역 경제계와 체육계가 2일 시무식 대신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합동 분향소에서 애도의 시간을 갖는 등 새로운 한 해를 열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오후 재화석 상근부회장과 김경호 전무이사 등 광주상의 임직원들과 함께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는 참사로 희생된 신 분들을 마음 깊이 애도하며, 소중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헤어리구조차도 어려운 고통과 슬픔에 빠져계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

분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3일 오전 경제인 합동 조문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도 같은 날 구제길 동구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90여명과 함께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시체육회는 구체육회에서 근무 중이었던 사고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지도자에 대한 장례 절차에 동참해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구체육회에서는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참담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사람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유가족의 충격과 슬픔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노동일 대표이사사와 이정효 감독을 비롯한 광주FC 선수단과 사무처 임직원들도 같은 날 오후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광주FC 선수단은 당초 3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에 소집돼 태국 코사무이로 1차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발생한 참사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광주에서 소집, 합동 참배를 진행한 뒤 출국을 위해 이동했다.

광주FC 임직원 역시 이날 오전 구단 사무처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대신했으며 지역의 아픔을 고려, 참배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합동 참배에 나섰다.

최동환·최권범·한규빈 기자